

## 「게릴라성 폭우」로 돼지 4만여두 폐사 -축사 247동, 가축 244만두 피해

- 홍보부 -



◀하루 6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강화지역을 비롯, 파주, 포천, 고양 등 경기북부 지역과 경북상주, 충북 보은지역 등이 사상 최악의 물난리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가옥이 무너지고 농장이 폐허가 된 모습

사상 유례없는 게릴라성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돼지 4만여두가 폐사 또는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까지 홍수로 인해 폐사 또는 유실된 가축은 돼지 4만여두를 비롯해 모두 2백44만여두이고, 축사 247동이 전파되거나 반파되었다.

지난 8월 6일 경기 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양축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12일 새벽 경북 상주와 충북 보은지역에도 폭우가 내려 양축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상주군에서는 장재인씨 축사가 물에 잠겨 1,000여 마리의 돼지

가 익사했는가 하면, 정수근씨는 돼지 350여 마리가 물에 잠기고 축사가 완파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보은지역에서는 5개 양돈농가 1,000여마리가 매몰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파주에서는 이번 폭우로 39개 양돈농가가 비 피해를 입고 6,209두가 폐사 또는 유실되었다고 한다. 동두천에서는 4개 양돈장에서 1,751두가 폐사 또는 유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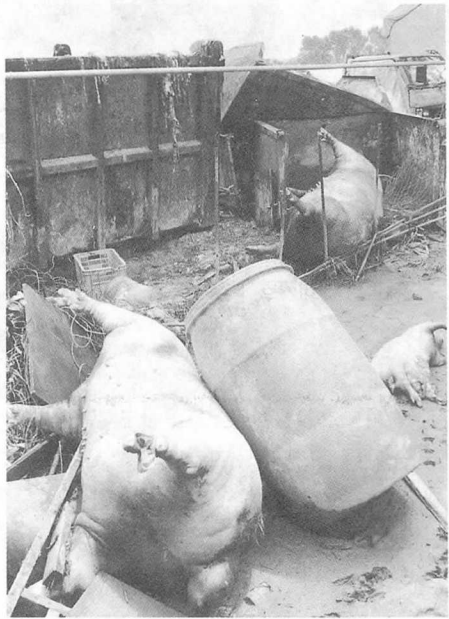
행정 자치부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 14일 현재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축 사육두수는 2백44만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본회 최상백 회장(우측)과 이명복 부회장(중간)이 경기도 고양지역의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민홍진 고양지부장에게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익사한 돼지 일가족,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육군00부대 장병들이 제방붕괴로 수해를 입은 농장에서 죽은 돼지를 묻기 위해 끌어모으고 있다.



한 축산농가가 돈사 안에서 죽은 자돈을 들어보이며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위/사람의 힘으로 폐사돈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양돈농가가 지역 농협에서 제공받은 굴삭기를 이용해 돼지를 묻고 있다.

아래/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지만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인재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

〈사진제공 : 축산신문사〉